



www.gbe.kr

# 명품 경북교육

2014 여름 Vol.86

참여와 소통으로 감동을 주는 명품 경북교육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 우리 집 식구

물야초등학교북지분교  
6학년 김한샘

‘윙윙윙’  
오래된 화장실에 살고 있는 파리들

‘앵앵앵’  
내가 잠잘 때 방에서 날아다니는 모기들

‘부부붕우우웅’  
치마 밑에 큼지막한 말벌들

‘투다닥 투다닥’  
지붕 위에서 뛰어다니는 생쥐들

아빠 엄마 누나 나랑  
함께 살고 있다.

## 우리 집 가는 길에

물야초등학교북지분교  
5학년 유한결

자동차 길 만든다고 산 깎아내고  
배수구 만든다고 땅 파고  
다리 만든다고 시멘트 조각 넣었다.

지난 여름, 한성이와 놀던 물에  
물고기가 떠 다니고  
가재가 죽었다.

지난 겨울, 한성이와 썰매 타던  
놀이터가 없어지고  
나무가 사라졌다.





## CONTENTS

- 04 **특집**  
교육감 취임사
- 06 **전국 최고가 되어 날아오른 명품! 경북교육**
- 08 **나도 한마디**  
예체능 활성화
- 10 **명품 경북교육 News**  
본청 소식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식  
공공도서관 소식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소식
- 24 **경북교육을 빛낸 별**
- 26 **사진으로 통하는 명품 경북교육**
- 28 **아름다운이야기**  
솔로몬의 지혜로 믿음과 감동을 준 최고의 학교
- 29 **명품 경북교육**  
학교운영위원회 / 녹색어머니회
- 30 **학생기자단 발굴 소식**
- 31 **카툰**  
갈겨니 / 맛쿨맛쿨 소개



표지이야기  
북삼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참여와 소통으로 감동을 주는

+

경북교육 2014 여름 Vol.86

발행일 2014년 8월 31일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최명대(공보담당관), 이동철(공보담당관 사무관)  
 기획 김현광(공보담당관 장학사)  
 편집위원 이영국(석포초 교사), 강호림(오래초 교사),  
 김윤지(삼성현중 교사), 석지원(경북체육고 교사),  
 한지영(북삼초 보건 교사), 정지수(경산유치원 교사),  
 홍경애(경북학생문화회관 사서)

제87호 명품경북교육 소식 원고를 기다립니다.  
 기관별, 우수교육활동사례, 학교소식, 미담, 교직원 및  
 학부모 글, 그림, 사진 등  
 보낼 곳 : khg2661@hanmail.net F. 053-603-3296



## 신 교육청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금오산 자락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간 교육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300만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도민들이 만족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5개 공약과 그 공약을 뒷받침할 50대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들께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구체화시킬 기획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4년간 경북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교육의 양대 축은 인성과 학력입니다.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스승 존경 풍토 조성으로 경북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성의 기본은 희생, 봉사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한 학생이 하나의 단체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노래하고 춤추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운 심성을 기르도록 한 학생이 하나의 악기를 다루고 1인 1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며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여 지식의 핵심인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겠습니다.

이젠 교육도 학교만이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손잡고 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활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하시면 공교육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교육청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안정된 가운데 교육을 바꾸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7월 1일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 신 교육청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안정된 가운데 교육을 바꾸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

# 명품 경북교육 4대 정책 목표, 5대 공약

## 4대 정책목표



## 5대 공약

### 1. 감성과 인성 중심 교육

- 전 학생 감성 코칭, 행복 힐링 기회 제공
- 1인 1악기 영주 및 1학생 운동 생활화 지도
-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동아리' 활동 활성화
-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 체험학습 확대
-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행복(감사) 나눔 운동 전개

### 2. 학생 학력 향상

- 기초·기본 학력 책임제 정착
- 사고, 토론, 체험, 독서, 등 학생중심 수업문화 정착
- 주5일제수업 및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수행평가 확대
- 권역별 미래형 진로·직업 체험학습장 설치
- 특성화고 청년리더 양성 및 해외현장 인턴제 확대 등

### 3.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 희망학생 전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유치원, 초등학교,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확대
- 교육복지사업 대상학교 확대 지원
- 농산어촌 명품고 및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
- 학급당 기본경비 확대 및 학생수 적정화 추진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공교육의 연계강화

### 4.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 폭력예방용 고성능 CCTV 설치 및 안심알리미 확대
- 모든 학교급식소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유아, 저소득층, 특성화 고교생 전원 교육비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동창회 명예장제
-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목적 강당 및 학교체육관 건립 확대

### 5. 교직원에게 보람 안겨 드리기

- 교직원 행복지수 높이기 프로그램 운영
- 유능한 교직원이 우대받는 승진 가산점제
- 교육행사 및 교육시책의 통·폐합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
- 교직원 고충 및 교권침해 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 상시·지속적 업무 직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전국 최고가 되어 날아오른 명품 경북교육



전국 최고가 되어 날아오른

# 명품 경북교육

경북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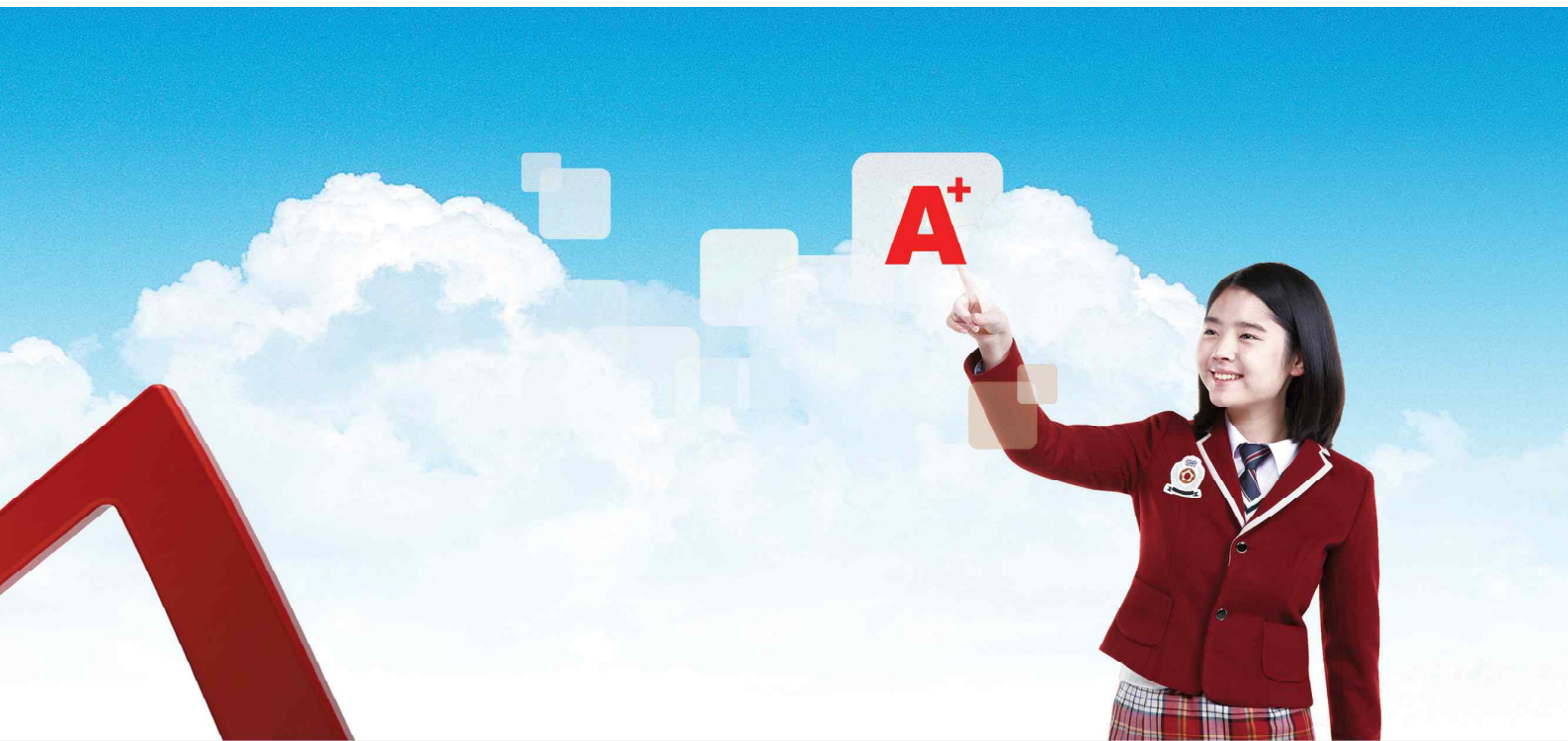
## 경북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경상북도교육청은 8월 21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우리교육청은 '학교자치 순찰제' 운영, CCTV 설치 확대, 진로탐색 7인 행복 릴레이 '나의 꿈 나의 길!', 진로·체험캠프 운영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농어촌 학교 지원 예산 확대, 학력향상, 인성교육,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교폭력에 방 및 근절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민선 3기 취임 후 첫 쾌거를 올린 이영우 교육감은 "2년 연속 1위 달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신뢰와 성원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평가의 우수한 부분은 더욱 내실을 다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17개 시·도교육청(시·도 구분 평가)
- 평가대상 기간 : 2013. 1. 1. - 2013. 12. 31.(1년간)
- 평가영역(7개 영역) :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청 특색사업

### 평가 결과

- 도 지역 종합 1위
- 점수 87.03점(도 지역 평균 75.76점)
  - 3개 영역 최우수 : 학교교육내실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 2개 영역 우수 :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연도별 우리교육청 평가 결과

연도	성적	평가 시상금	비고
2009	2위	59억원	
2010	1위	109억원	
2011	2위(매우우수)	130억원	
2012	3위(우수)	127억원	
2013	1위(우수)	122억원	6개 전 영역
2014	1위(우수)	교부 예정	5개 영역



# ‘예체능수업 활성화’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최은도 (구미고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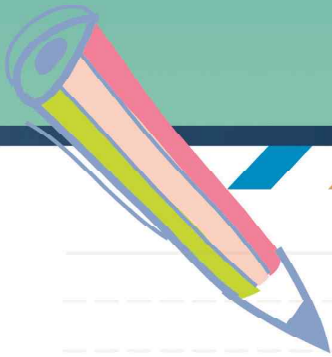
##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예체능 과목 시수를 줄여 가며 수능공부에만 매진한다. 때문에 예체능 과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성, 배려, 창의력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체력도 형편 없이 낮아졌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와 수학, 영어는 과목당 일 주일에 5~6시간인데 비해 체육과 음악, 미술은 2~3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의 주된 원인은 수능만을 위한 교육 때문이다. 수능 점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예체능 과목이 사라져가는 실정이다. 원래 학교는 지(知), 덕(德), 체(體)를 골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지, 덕, 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진정 예체능 과목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일까? 물론 수능에는 예체능 과목이 존재하지 않고, 예체능 과목을 배운다고 수능 성적이 오르는지는 않는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해본다면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과목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우리의 창의력이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체육은 우리가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기초체력을 보강해 주고 두뇌회전을 촉진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예체능 과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 같이 하는 활동이다.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사교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양보, 타협을 통해 인성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강요하기보다는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수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듯 예체능 과목의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줄어든 기존 예체능 과목 시수를 늘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만 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나 사회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입시 점수에 반영되는 주요 과목에만 목숨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이 무시되고, 체력은 약화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성을 배울 수가 없다. 이제는 학부모들과 사회의 인식이 변해야 할 때이다.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 체력을 단련시키고, 노래도 부르며, 그림도 그려보고 다양한 작품들도 감상을 해야 오히려 공부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예체능수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2, 3학년 학생들은 예체능 교과목은 직접적으로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하고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 학생들은 예체능 과목은 학습의 일부분이 아니라 부족한 잠을 자는 시간 정도로 여기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학생들도 이제는 예체능수업에 방관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간보다는 지식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단순히 지식만 많고 틀에 박혀있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창조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이다. 이제 학교 교육만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진정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변해야 할 때이다. 성공을 위해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강요하기보다는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수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청 소식

### 우리 학교가 가장 행복해요

경상북도교육청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에 도내 유·초·중·고 10개교가 참가해 경북교육의 우수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이 행사는 꿈, 끼, 행복, 자유학기제 등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전국에서 150개 학교가 참가하였다. 경북에서는 김천 부곡초등학교가 '꿈'을 주제로, 상주중앙초병설유치원·흥해공업고등학교·용운고등학교·안동영명학교가 '끼'를 주제로, 영주이산초등학교·김천중앙고등학교가 '행복', 포항제철중학교·선산중학교·진보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참여해 경북교육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과 학교별 다양한 특색사업을 널리 알렸다.



### 학교폭력 제로에 앞장서는 또래상담자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청소년진흥원과 협력하여 8월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안동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상북도 또래상담자 어울림 하계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도내 중학생 또래상담자 100여 명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갈등중재 기술과 공감적 대화법 등을 훈련받았으며, 각 지역의 또래상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래상담자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 희망을 품은 21일간의 특별한 여행

경상북도교육청은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북대학교에서 울릉도를 포함한 23개 시·군 중학생 243명이 참가한 '2014 삼성드림클래스 여름방학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읍·면·도서·산간벽지 지역 중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학생들은 우수 강사들과 함께 꿈을 찾아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21일간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식



### 경북 과학인재가 한자리에

경상북도과학교육원(원장 이창인)은 6월 14일에 위덕대학교에서 도내 초·중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2회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대회에서 선정된 252팀이 참가하였고, 최종 선발된 12팀은 8월 중순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경북대표로 출전할 계획이다.



### 큰 꿈을 이루는 행복 포항교육 실현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희)은 6월 17일에 신청사 개청식 및 꿈 기부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포항시 양덕동에 지상5층, 지하층 구조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신청사는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을 갖추었으며 이날 개청식으로 행복 포항교육 실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 명인과 함께 아삭아삭 김치 담그기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한)은 6월 18일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조리사를 대상으로 전통김치 담그기 조리실습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영희 김치명인을 강사로 초빙해 전통발효식품 '김치'를 직접 만들어 학교급식에 제공하였다.

##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식



### 우리 아이 성장을 돕는 비결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한영)은 6월 17일에 관내 유치원 학부모자원봉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영미 강사의 경험적 강의, 스포츠클럽 대표의 '함께 놀이 하며 자녀 성장을 돕는 부모'라는 활동 연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길)은 제2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관내 3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통일엽서 만들기, 무궁화 그리기, 분단과 통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 환경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울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영희) 청소년합창단은 제 17회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청소년합창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창단하였으며, 관내 초·중 22교 6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공공도서관 소식



## 만족도 최고! 평생교육강좌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관장 이수옥)은 평생교육강좌를 통해 14명의 수강생들이 신문활용교육(NIE)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강좌는 자녀교육을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강좌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 올진도서관

경상북도립울진공공도서관(관장 박찬규)은 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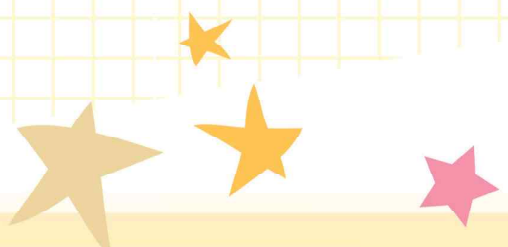
다양한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이용자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 할머니 재능기부 동아리 '어울링 더울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이승태)는 할머니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화구연, 아동요리, 문화치료 등 각자가 가진 재능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 엄마손 급식으로 건강 쑥! 걱정 뚝!

경산유치원(원장 김차균)은 3월 25일부터 4일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급식 홍보를 위한 학부모 급식 참관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은 조리실 내부 견학 및 조리과 배식과정 참관, 원아와 함께 식사하기, 원장과의 대화 시간으로 이루어진 급식 모니터링에서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 다름을 이해하는 동그라미 마음

영주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백근수)은 7월 1일부터 이틀간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조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원아들은 휠체어와 지팡이를 이용한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체험을 하였으며, 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함께 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자라길 기대해본다.



### 꼬마 농부들 모심기 하던 날

상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허만섭)은 6월 13일에 친환경 농가 봉강마을에서 모심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꼬마 농부가 된 원아들은 벼가 자라는 과정과 전통 모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으며 모심기를 직접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울릉도 호박엿 사세요!

울릉교육지원청 관내 병설유치원(교육장 최근대)은 7월 3일에 '울릉도 호박엿 만들기'라는 주제로 유아 및 학부모와 함께 엿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이날 체험은 엿치기, 엿 자르기, 엿 포장의 전 과정을 관람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엿을 먹어보는 뜻 깊은 시간을 통해 울릉도의 특산품인 호박엿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궁금해요, 경찰관 아저씨!

도산유치원(원장 제정희)은 6월 18일에 경찰관인 학부모를 초청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아들은 "도둑을 잡아 봤나요?, 총은 있나요?, 커서 경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두 눈을 반짝이며 경찰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우리 동네를 위해 수고 하시는 경찰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넌 이름이 뭐야?

경산꽃재유치원(원장 장명희)은 5월 26일에 대경대학교 동물조련이벤트학과를 초대해 야생동물, 조류, 곤충, 파충류 등 50종 약 100두를 전시하는 이동 동물원을 개최하였다. 원아들은 평소 동물원에서 경험하지 못한 만져보기, 먹이주기 등 직접 체험활동과 다양한 질문으로 처음 만져보는 동물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POST CARD  
CARTE POSTALE

명품 경북교육 News\_ 초등학교 소식

## 초등학교 소식



### 맑은 선율에 아름다운 꿈을 심고

남선초등학교(교장 권한중)는 5월 30일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제1회 갈라산 동요제를 개최하였다. 갈라산 동요제는 그동안 학생들이 수업 중 배웠던 동요들을 스스로 연습하여 학급의 화합을 다지고 기량을 뽐내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맑은 음색을 통하여 자기 계발의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맹자란 무엇인가?

동성초등학교(교장 이정희)는 6월 13일에 3·4학년 학생들이 근암서원으로 선비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먼저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옛 선비들의 배례와 걸음걸이, 몸가짐, 예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의예지, 나의 뿌리, 4단 7정에 대해 공부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 꿈과 희망을 그린 벽화세상

죽변초등학교(교장 김진문)는 6월 12일에 학교 담장을 벽화로 새롭게 단장,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울진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삭막한 시멘트벽을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한 것. 이번 사업은 '꿈과 희망을 그린 벽화세상'을 주제로 전 교직원과 학생들뿐 아니라 희망하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 재난 대응, 빠르게 정확하게

서벽초등학교(교장 권춘탁)는 6월 11일에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영주소방서 춘양119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및 재난 대응 교육을 위한 심폐소생술, 소화기 훈련 등의 안전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교생이 실습의 기회를 직접 가짐으로써 각종 재난 대응 및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수비초등학교(교장 오원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3일에 전교생 및 교직원 70명이 영양군 추모공원에 있는 충훈탑을 참배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목숨과 맞바꾸어 얻은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나라사랑 마음을 다졌다.



### 한 지붕 일곱 가족 행복학교 만들기

송원초등학교(교장 최태규)는 5월 23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을 이번 행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대화하며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산책하고, 학생들이 평소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POST CARD  
CARTE POSTALE

명품 경북교육 News\_ 초등학교 소식

## 초등학교 소식



### 음악줄넘기로 '몸 튼튼 마음 튼튼'

오탈초등학교(교장 박재홍) '줄사랑' 팀이 5월 25일 대구 서구국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클럽대항 전국줄넘기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2년부터 교육부 지정 건강증진모델학교로서 '몸 튼튼 마음 튼튼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예체능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교생이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줄넘기 520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다.



### 자연을 벗 삼아 함께 걷는 인현왕후길

증산초등학교(교장 서옥선)는 5월 15일에 체력과 환경, 인성을 결합한 Walking With Eart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가족이 함께 '인현왕후길' 걷기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자연을 벗 삼아 함께 걸으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情)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 사랑·행복 나눔 캠페인 '孝' 체험 활동

평산초등학교(교장 김영성)는 5월 24일에 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단 '들뢰어울학부모회'와 함께 인근 노인정을 방문하여 사랑·행복나눔 캠페인 '孝'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경로효친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학부모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 비보이(B-Boy) 가야금 줄을 타고 신나게 Boom-Up!

성주초등학교(교장 정기철)는 5월 20일에 강당에서 '2014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 백제가야금 연주단을 초청해 전교생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공연은 가야금과 동서양 음악의 하모니, 흥겨운 우리 민요와 함께, 비보이와 함께 Boom-Up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퓨전 가야금 연주곡과 비보이의 역동적인 춤이 어울려 학생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 씨름의 매력 속으로 풍덩

이서초등학교(교장 서문현)는 5월 21일에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前 천하장사 이태현 교수(용인대)를 초청하여 '꿈나무 씨름교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민속경기인 씨름을 널리 보급하고, 체력 향상과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은 민속 경기 씨름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기쁨을 전하는 아름다운 몸짓, 하이파이브!

인평초등학교(교장 정군석)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학기 '하이파이브 캠페인 주간'으로 정하고 등굣길 교문, 교실에서 서로 웃는 얼굴로 하이파이브로 인사하기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하이파이브로 서로에게 기쁨과 격려를 전했고 처음에 쑥스러워하던 친구들도 웃으며 인사함으로써 한층 가까워지게 되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중학교 소식



## 나의 체온을 너와 함께 나눌게

화동중학교(교장 김명식)는 3월 3일 '신생아모자뜨기' 캠페인과 함께 따뜻한 신학기를 맞이하였다. 이 행사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체온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신생아들에게 모자를 직접 떠서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전교생 36명이 어설피 솜씨이지만 안타까운 신생아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



## 몸으로 다짐해요, 학교폭력예방 플래시몹

성신여자중학교(교장 윤종수)는 4월 2일 천백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플래시몹 시연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성신여자중학교 전교생, 학부모 및 교사와 우석여고 전교생이 플래시몹 시연에 참여하였으며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특강도 있었다.



## 6·25전쟁 유해발굴 개토식에 참가하다

동명중·고등학교(교장 김대곤)는 4월 17일 중학교 3학년 33명, 고등학교 1학년 27명의 학생들이 국방부 주관으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실시한 6·25전쟁 유해발굴 개토식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디지털화된 최신 군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 이야기로 풀어가는 체험학습

입암중학교(교장 이재일)는 5월 2일 현장체험학습으로 '스토리텔러와 함께 하는 지역 문화유산 답사'를 진행하였다. 본교 3회 졸업생인 안동대학교 정중수 교수가 서석지 및 봉감 모전오층석탑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은 선바위(立巖) 공원 둘레 길을 걸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글 속에 마음을 담다

근화여자중학교(교장 임순희)는 5월 12일 아침 시간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글쓰기를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하는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가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 죽령옛길의 산적이 되다

대영중학교(교장 신현복) 한울타리 봉사단은 6월 1일 영주문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죽령옛길 걷기 행사'에 20명의 학생들이 동참하여 등반길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즐거운 퍼포먼스를 준비하였다. 그들은 죽령옛길 일원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산적이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옛길에 오르는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 나는야 주부 9단, 된장 만들기 내 손으로

상주중학교(교장 정재기)는 5월 31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림사와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35명이 전통 발효식품 된장만들기 체험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된장 뜨기와 된장 비비기 체험을 통하여 발효식품의 과학적 가치를 알고 우리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 고등학교 소식



## 꿈·사랑·행복 가득한 입학식

효령고등학교(교장 김옥자)는 3월에 하모니카 선율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입학식을 가졌다. 2학년 학생들의 난타 공연으로 막을 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하모니카와 장미꽃을 선물로 받았다. 특히 신입생들이 자신의 꿈을 적은 다짐의 글을 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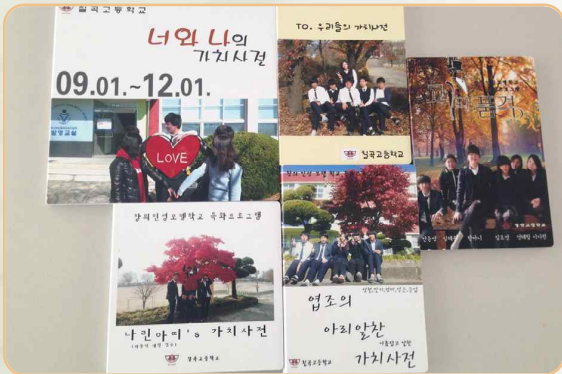
## 푸른 동해에 울려 퍼진 골든벨

영해고등학교(교장 박재복)는 지난 봄 KBS방송국 '도전! 골든벨'에 출연해 3학년 김대근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다. 참여한 학생들은 "골든벨을 울리는 것보다 그동안 준비한 시간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녹화 현장에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도 참석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 행복을 담은 효(孝) 실천 프로젝트

경주디자인고등학교(교장 우진하)는 5월 9일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방문해 효를 실천하였다. 학생들은 가정의 달 맞이 프로젝트 수업 시간에 정성껏 만든 꽃다발을 어른들께 전해드리고 말벗되기, 식사 도우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전교생이 저자가 되다

칠곡고등학교(교장 이용욱)는 2012년부터 전교생이 저자가 되는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그간 '가치사건 포토북'과 '자서전'을 펴냈으며, 올해에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제동행 에세이집'을 준비하며 고교 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전문가에게 꿈을 묻다

영천고등학교(교장 이우경)는 5월 30일,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인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시인, 소방공무원, 엑스코본부장, 경찰 등 21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을 초청해 직업에 대한 알찬 정보와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봉사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경북인터넷고등학교(교장 이두홍)의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전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봉사, 아트, 영상, 댄스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된 경북인터넷고 봉사활동 동아리 '봉화인터랙트'는 6월 7일 발표된 '제3회 전국로타리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경북교육을 빛낸 별



## ★ 양궁 꿈나무 ★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 양궁부문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로 공동 다관왕에 오른 예천동부초등학교 김태희 선수는 양궁 꿈나무다.

초등학교 3학년때 부터 양궁을 시작한 김태희 선수는 5학년 때인 2013년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따 주목을 받았다. 어린 양궁선수 답지 않게 승부 근성과 활을 쓰는 담력이 뛰어난 김태희 선수는 열심히 연습해 선배인 윤옥희 선수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꼭 따겠다고 다짐한다.

## ★ 최연소 국가대표의 꿈을 향해 ★

삼성중학교(교장 장원섭) 3학년 김다니 선수가 6월 7일 여수 망마 경기장에서 열린 제42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 창던지기 부문에서 67m 23을 던져 한국중학교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 선수는 '제15회 전국 꿈나무 선수 선발 육상대회'에서도 대회 신기록을 수립해 2013년 육상국가대표 상비군에도 선발되었으며, 현재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꿈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 ★ 금빛 꿈을 들어 올린 최우수 선수 ★

금오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기) 3학년 허선정 선수가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8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학생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해 여고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허선정 선수는 지난해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11월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꿈의 기업에 입사한 패션디자이너 ★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교장 윤용호) 3학년 박주현 학생이 5월 11일에 방송된 KBS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에서 최종 우승해 아동복 전문 브랜드 (주)드림스코에 입사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주현 학생은 '꿈과 희망을 주는 맞춤형 옷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민무늬 아동복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2차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꿈의 기업에 입사해 경북특성화고등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 10년을 기다린 값진 메달의 주인공 ★

경북체육고등학교(교장 이원영) 3학년 김진녕 학생이 4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2014 세계청소년복싱선수권대회'에서 10년 만에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2014 난징하계유스올림픽' 예선을 겸해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김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해 본선 출전권도 함께 손에 넣게 됐다. 한국 선수가 -91kg급에서 유스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것은 처음이며 단단한 몸집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접근전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여 승리했다. .



★ 행복을 요리하는 최고의 조리사 ★

영광고등학교(교장 이신순) 3학년 김복건 학생이 5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0회 위덕대학교 총장배 전국 고등학생 조리경연대회에서 양식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50여 개 고등학교에서 70여 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배운 솜씨를 마음껏 펼쳤다. 김복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요리 분야에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으며 행복을 요리하는 최고의 조리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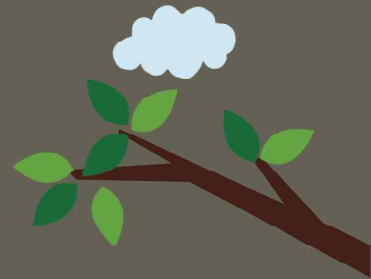
# 사진으로 통하는 명품 경북교육



- 01 행복한박람회
- 02 행복한박람회
- 03 기능경기대회 격려
- 04 봉화초등학교 100주년
- 05 드라마촬영 역사광고만들기 포철고
- 06 꾸미기\_대학생 교육기부\_각남초
- 07 높이 뛰기
- 08 토론회를 마친 학생들
- 09 의성여고 컬링부
- 10 화랑정신 배우러 왔어요.

			05	06
	01		07	08
02	03	04		09
				10





## 솔로몬의 지혜로 믿음과 감동을 준 최고의 학교

제 아이는 2014년 3월 1일에 안동 경안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집이 청송에 있어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오전11시경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심한 가슴통증 때문에 호흡곤란이 심해 지금 병원에 갈 예정이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컹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건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 빠른 진료를 위해 바로 응급실 접수로 진료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끝까지 아이와 함께 하겠다는 보건선생님을 학교로 보내드리고 담당과장님의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흉 진단을 받고 지금 당장 흉관 삽관으로 공기를 빼내야 하고 하루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흉관 삽관 시술, 가슴에 튜브를 단 채 입원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병원 도착과 동시에 30분 안에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빠른 조치로 인해 다음날 바로 수술 일정이 잡혔고 수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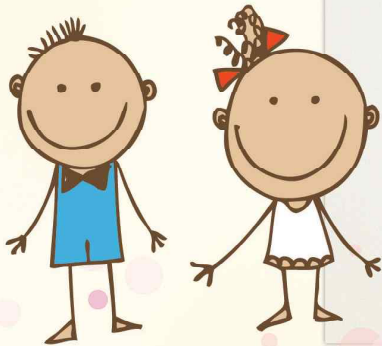
다음날(4월 30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병원에 있는 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보는 중간고사를 못 치게 되어 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는 수술이 잡혀있어 시험을 절대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아신 선생님께서는 그날 저녁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현재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시험에 응시한다 해도 100%기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중간고사 시험을 못 볼 경우 기말고사 성적에서 어떻게 어떻게 적용하게 되고 그러한 편이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공부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에 전념 후 빨리 쾌유하고 또 현실로 돌아가서 공부에 집중하면 된다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아이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셨고 현재 학교 상황 등을 알려주시며 걱정 말고 쾌유하길 빌어주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 기숙사생활을 한지 겨우 2개월째,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모입장입니다만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는 더 편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담임선생님 성함도 보건선생님 성함도 모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제 마음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가득했던 경안고등학교 1학년1반 담임선생님과 보건선생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 5. 11.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박찬순 님의 글〉



학교운영위원회

# 경북교육발전의 큰 힘, 2014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경상북도교육청은 6월 12일에 경북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의 201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사립학교는 총 952개교(초 478개교, 중 275개교, 고 191개교, 특수 8개교)이며, 2014년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는 초등학교 473개교, 중학교 215개교, 고등학교 191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887개교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4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

# 365일 노랗게 물든 안전한 등굣길

녹색어머니회칠곡연합회원을 비롯한 북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5월 28일 8시부터 북삼초등학교에서 학교장 및 칠곡경찰서 교통계장, 경찰관 등 지역 유관 기관 인사들과 다수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참석자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일단 서자, 살펴보자, 건너자' 라는 구호를 내걸고 즐거운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는 지역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365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 학생기자단 발굴소식

大邱日報

2014년 07월 04일 금요일 009면 문화

## 평소에 못다한 이야기 '도란도란'



김천상고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격주로 사제동행 지리산 둘레길 종주를 통해 신리와 참여의 소중한 체험기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종주에 참가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습.

### 학생 리포터

#### 김천상고 사제동행 지리산 둘레길 종주

친구·선생님·학부모 함께 산행  
부족했던 대화나누며 소통  
고교시절 잊지 못할 추억거리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고 친구, 선생님, 학부모가 함께하는 지리산 길은 주말 집에서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수백 배의 보람과 행복감을 준다.

특히 선생님과 제자들이 산길과 들길을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색했던 친구들과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부모님과 부족했던 대화도 나누며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다.

김천상고 학생들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격주로 사제동행 지리산 둘레길종주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종주는 지리산 둘레길 24구간 274km 중 21구간인 방광마을에서 산동마을까지 13.1km를 다녀와 이제 50km를 남겨두고 있다.

처음에는 '날씨도 너무 덥고 어느 세월에 6시간을 다 걸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계곡도 건너고 그늘진 곳도 많고 등산하기 좋은 땅이었다. 하지만, 더욱더 힘을 내고 기분 좋게 등산할 수 있었

던 것은 같이 등산하는 친구들도 옆에 같이 있었고 선생님들과 얘기도 나누고 서로 지칠 때마다 물도 나눠 마시고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때문이었다.

이혜선(3학년) 학생은 "친구들이랑 기다가 힘들면 서로 끌어주고 짐도 들어주는 등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서 고교시절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가기 싫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지?'등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오니 학교생활에 임이 되는 것이 많았다. 끈기와 의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더욱더 보람을 느낀 것은 평소에 어색했던 선생님들과도 많이 친해지게 되고 힘든 일 있는 얘기마저 털어놓게 된 것이다.

종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성하 선생님은 "지리산 둘레길 274km를 종주하면서 학생들이 자존심과 애교심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인생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엔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는 평소 학교에서 인사만 하고 얘기를 오래 나눈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지리산둘레길 덕분에 어색했던 선생님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

고 취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많이 친해졌다. 김은경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이야기까지 산길을 걸으면서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춘기 학생들과 대화가 부족한 학부모들에게는 달라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돼,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참여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황은숙 학부모는 "부모로서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직접 볼 수 있었고,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기도 나누고 힘든 길은 아들 손을 잡고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강종모 교장선생님은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함께 산행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면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리산둘레길 탐방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주말 활용과 민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갖게 했고, 선생님들에게는 학교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글·사진=경북교육청학생기자단 김천상고 3학년 김태연

# 갈겨니



- 이걸 뭐야?
- 음 파리낚시.
- 파리낚시?
- 민물고기가 진짜파리 인줄 알고 덩크 놓어.
- 그래? 어떤 것인지 한 번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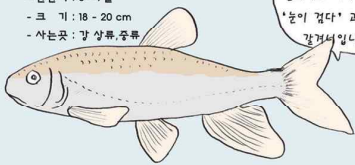
- 민물고기가 무는 동안 여기서 기다려라.



- 야, 잡혔다.
- 눈이 걸고 은백색 민물고기니까. 이걸 갈겨니다.
- 신기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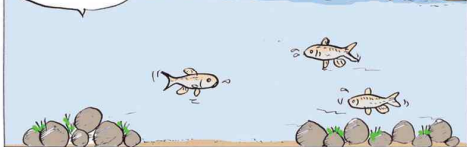
- 어류명 : 갈겨니
- 산란기 : 6-7월
- 크 기 : 18 - 20 cm
- 사는곳 : 강 상류,중류



'아무데나 돌아다닌다' 고 갈겨니가 아니구로 '눈이 걸다' 고 갈겨서입니다.

우리는 사는 물이 다른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갈겨니 1-2급수를 대표하는 민물고기인 만큼 강 상류나 중류 등과 같이 맑은 물에서 산다. 오염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댄 강바닥, 적수지 등에는 살지 못한다.



야, 얼음이 그게 뭐야? 티끌연고제라도 받아야 겠다.

산란기는 6-7월이다. 이때 수컷은 노란색을 띄고 입주위에는 작은 풍기가 생긴다.

무슨 소리야, 그런거 안팔라도 돼. 아바가 되기 위해 생긴건데. 청춘의 실패 연드름이라구.



재네들은 왜 웅덩이에 알을 낳지?

주르 낮게 알을 낳는다. 깨끗하고 물이 환한하게 흐르는 바닥에 모래자갈이 깔린 거울에 알을 낳는다.

그걸 웅덩이에 알이 떠 내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유일 깨끗하고 귀한 물이라서 3급수에서는 못산다구로.

수행된 알은 20' C에서 3일 23' C에서 5일이면 부화한다. 갈겨니는 나무가 무성한 물가를 좋아하며 주르 근중을 잡아 먹는다.



- 갈겨니가 소집된 강바닥이나 저수지에는 못산다고 하니 환경보호가 중요 해.

- '히 배고파, 라면들은 언제 끊어



아셨죠? 유일 '친환경' 이라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아무리 봐가 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by 조승재

맛있는 학교 이야기, 맛있는 학교 이야기  
경상북도교육청 공식블로그 **맛쿨멋쿨**  
<http://blog.naver.com/2mcool>

경상북도교육청 공식블로그 '맛쿨멋쿨' 소개합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경북교육 이야기가 와르르 쏟아져 나오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주는 그 곳에서 맛있는 학교이야기 맛있는 학교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그 감동을 댓글로 남겨 '명품! 경북교육'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길 행복의 동행에 꼭 참여해주세요.

**맛쿨멋쿨 클릭하기**  
유치원 소식, 초등학교 소식, 중학교 소식, 고등학교 소식, 경북교육 100년 이야기, 경북교육현장, 독도는 지금, 경북의 꿈나무, 학교 여행, 교육 영상, 궁금해요! 명품교육, 경북교육청 이야기, 교육지원청 소식, 인터뷰 영상, 클릭! 도슬세 웹툰: e-orange store, 민물고기 여행기